

## 돌아오는 삼일절 (2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시다 주최측 삼일절 행사를 알리고 총력 준비 당부



▲ 광화문 이승만광장 국민대회

**우리가 하나 되고 힘을 모아서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 시장경제와 한미동맹으로 예수한국 복음통일 땅끝 선교의 문을 활짝 엽시다.**

전광훈목사가 이끄는 광화문 모임이 지난 2월부터 삼일절 홍보글을 내 보내면서 행사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간첩의 왕인 신영복을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선언한 말부터 서독의 간첩 윤이상 묘지에 부인을 시켜 참배하였고 6.25의 3대 전범이며 남조선 적화를 위하여 북한의 대남 간첩 총사령관인 김원봉을 국가 유공자라고 하는가하면 완전한 공산주의자인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여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편입하려고 시도하다가 10월 국민혁명의 저항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조국보다 10배 이상인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남한의 모든 국토를 개인으로부터 빼어 국가 토지 공유제로 공산주의를 실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는 4.15총선에서 200석을 달성하여 평화 헌법으로 개헌하고

연방제를 통하여 북한으로 가려 하는 의도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목적지에 반대하는 자들은 무차별 공격하여 매장시키고 윤석열 검찰 총장까지 추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살길은 주사파와 문재인 일당을 속히 끌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국민들 중 일부는 문재인인의 국가 해체를 통한 북한의 편입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반드시 대한민국은 없어질 것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삼일절 (2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주사파를 제외한 전 국민이 뛰어나와 국민혁명으로 문재인의 대한민국 해체를 막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방송 “너 알아 TV, 신의 한

니다. 이제 우리는 김정은 밑에서 살던지 대한민국의 영광 안에서 살던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나 국민들께서 지나친 기우라 생각하여 방관한다면 반드시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하수인 문재인에 의하여 비극적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도 있으나 결정적 실수는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건국 70년 후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미국을 포함한 일본과 전 세계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대한민국만 모르고 있다면 통탄할 일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전교조, 민노총, 주사파들에 의하여 이념이 감염된 분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의 백신으로 치료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없는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체제를 지키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애국자 지도자들을 보호하고 지켜내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번만큼은 태극기로 모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겨야 할 것입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위대한신 애국심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삼일절(2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 광화문 이승만 광장) 행사를 알리고 총력 준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힘을 모아서 자랑스러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시장경제와 한미동맹으로 예수한국 복음통일 땅끝 선교의 문을 활짝 엽시다.

## 대신신문발간 인사말 선지자적 외침이 필요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대신)총회장  
 강대석목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야성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다. 무엇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야성을 사라지게 했을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선지자적 외침의 부재가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본다. 선지자적 외침의 부재는 믿음의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으며 더 나아가 믿음의 야성을 잠재우고 있다.

관용과 포용 그리고 개인의 인권을 강조한 나머지 아닌 것은 아니라는 절대적 진리를 외치고 선포하는 것이 참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분명 무엇이 선이고 진리인지 알면서도 세상의 풍파 속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소극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특히나 여러 가지 당면하고 있는 반기독교적인 가치들에 대해서도 그 어떠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다만 기도만 할 뿐이라는 말이 고상하고 고귀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성경적 진리를 선포하는 선지자적 외침은 무례하고 무지한 행동이 아니다. 단순히 세상 속에 반기를 들고 세상을 부정하는 비현실적이고 괴리가 있는 먼 나라 이야기들이 아니다. 선지자적 외침은 교회를 위한 일이며,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을 위한 일이다. 그 옛날 종교개혁의 발단도 주변의 상하고 침묵한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살리고 세워야겠

다는 용기있는 선지자적 외침이 변화를 넘어 개혁을 가져온 것이다.

지금은 선지자적 외침이 절실할 때이며 필요할 때이다. 한국교회를 향한 자성의 목소리들이 많다. 이 외침들 안에는 본질 회복을 향한 간절함이 묻어있다고 본다. 지금은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부여하신 열매에 감사하며 취해있을 때가 아니다. 다시금 초심을 가지고 그 옛날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었던 영혼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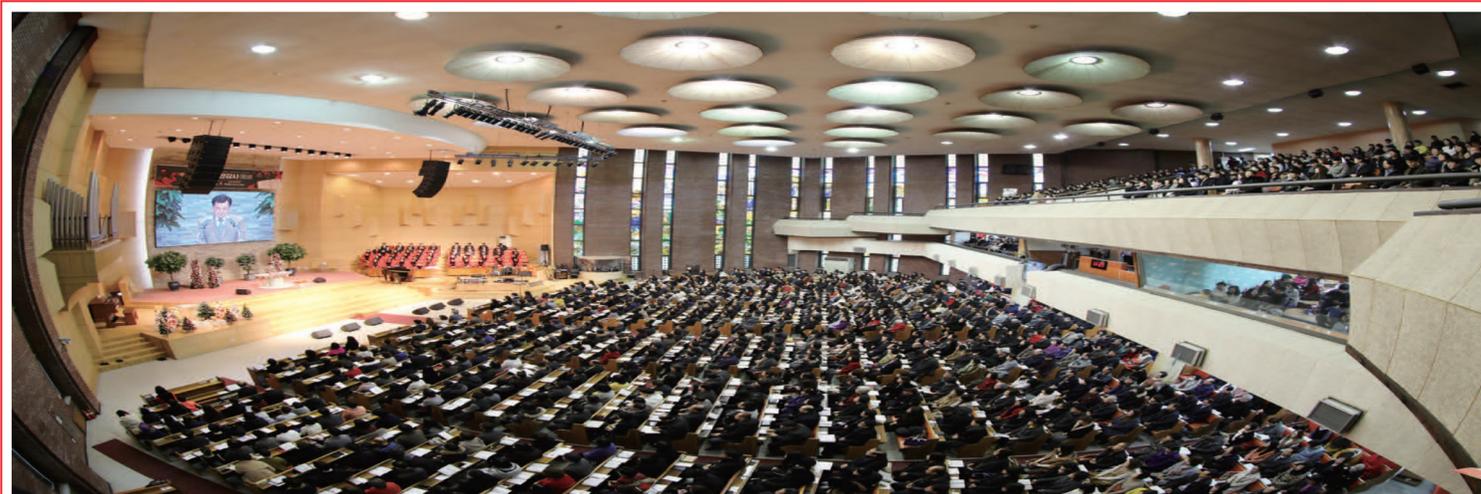
그런데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가있는가? 우리의 모습 속에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지금 우리는 외적 풍요로움과는 대조적으로 내적으로는 빈곤함을 호소하는 내 주변의 영혼들에게 무엇을 보여 주고 있는가? 외적 자유로움과는 대조적으로 내적으로는 결박된 채로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내 주변의 영혼들의 영적 상태에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세상 한복판에서 외쳐야 되지 않는 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세상 한복판에 있는 각각의 교회들이 잠에서 깨어 자신이 밟고 있는 그 땅에서 마땅히 드러내야 했음에도 드러내지 못했던 영향력과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 시점이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 시발점에 선지자적 외침이 있다. 이번 대신기독교신문 발간이 그 외침의 시작이 될 것이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부흥의 기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기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대신) 총회장 강대석목사

Contents 2 교단소식 3-5 교계소식 6-7 신앙과 삶 8 전면광고



담임목사 강대석

주 소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63번길 4  
 >>> 경인교대 6번출구  
 연 락 처 032)544-2341  
 F A X 032)543-0182  
 홈페이지 www.cwch.org

#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총회장 강대석목사 본사 방문

## 교단언론사으로서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에 격려와 축복의 기도



▲ 사진 설명=강대석총회장(좌), 교회협동신문사 임원(우)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장 강대석목사는 18일 대신교회협동신문사를 예방하여 교단언론사로서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에 격려와 축복의 기도를 드렸다.

강대석 총회장은 대신교회협동신문사를 둘러 보면서 신문사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대신총회는 한국교회에서 모범적인 장로교 총회로서 또한 대한민국 애국 운동의 최선봉에 있는 전광훈목사(대신총회 49회기 총회장)의 소속 총회로서 대신총회가 전 목사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다하고 최선으로 돕는 데 언론이 큰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

고 전했다.

한편 대신교회협동신문은 대신총회의 교단지로서 월 2회 격주간으로 44개노회 1600교회와 장로와 성도들에게 정기간행물로 발송되고 있다.

또한 대신교회협동신문사는 부천시 성주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고국장, 김용백목사(안양 늘평안교회 담임), 영업국장, 이창복목사(열린문교회 담임)가 섬기고 있다.

우익식기자

# 고봉 김치선 목사 포럼 열려

지난 1월 20일부터 23일 까지 미국 LA 근교에 소재한 New Life World Mission 센터에서



대신신학 설립자 고봉 김치선 목사

대신총회장 강대석목사의 후원으로 열린 고봉 김치선목사의 미주포럼은 LA에서 목회하는 안양대학(대한신학) 출신 목회자들 중심으로 한 김은목 목사(안양대41회)등이 주최를 하고 한국에서는 박근상 목사(신석교회) 김항우 목사(청파중앙교회) 등 13명과 심평중 목사(28회 오크라호마 로턴장로교회) 등 미국의 현지 목회자를 합한 30명이 참석하였다.

뉴 라이프 월드미션 센터는 LA다운타운에서 승용차로 한 시간 30분 정도의 거리에 소재하는 센터이며 이 센터는 용문산 출신 수도사가 운영하던 감리산기도원이었는데 몇 년 전에 New Life World Mission에서 구입하여 사

용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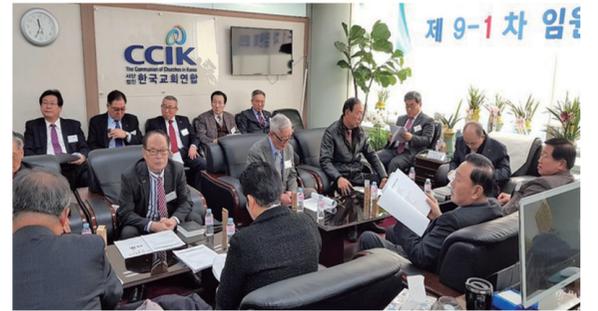
고봉 김치선 포럼의 프로그램 안내서를 보면 "이만팔천 동네에 가서 우물을 파라!"라는 제호 아래 성경을 펼쳐 보시는 김치선 목사의 인자하고 경건한 모습 앞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이번 모임을 주관한 New Life World Mission 이사장 김은목 목사는 환영사에서 제1회 고봉 김치선 박사의 포럼에 참석해 주신 선배 그리고 동료 목사와 교수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이번 포럼이 김치선 박사의 신학과 신앙을 재조명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자고 주장하며 과거의 김치선을 오늘의 김치선으로 그리고 내일의 김치선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그리고 기념사업이 한 인간의 삶과 신앙만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김치선 박사님이 만나주신 주님을 우리도 만나고 박사님이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고 주님을 증거하며 박사님이 가지셨던 그 열성으로 박사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꿈을 우리도 꿈꾸며 민족 복음화와 세계복음화에 앞장 서며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자가 되자고 환영사를 하였다.

박근상목사

# 한교연, 한기총과 통합 대표회장에 위임

## 한교연 제9-1차 임원회, 한기총과 통합, 대표회장에게 전권 위임



▲ 한교연은 지난 4일(화) 회의실에서 제9-1차 임원회를 열고 한기총과의 통합의 건을 심도있게 논의한 끝에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에게 전권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전광훈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에 지난 1월 30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제31회 정기총회에서 박수로 추대 받으면서 한국교회의 숙원인 연합기구 통합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통합을 위한 연합기구 간 물밑 접촉이 속속 진행되는 가운데 부활절 연합예배도 추진되고 있다. 부활절과 4·15 총선 직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전 목사는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권태진 목사·이하 한교연)과 한 달 안에 통합을 완성하고, 이어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김태영 목사 등·이하 한교총)과도 통합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광훈 목사는 "한교연과는 연합총회 날짜만 정하면 된다. 한교총의 경우는 며칠 전에 이영훈 목사를 만나 한기총과 한교연이 하나 되면 함께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통합을 하면 나는 최소 공동대표를 할 것이고, 나보고 나가라고 하면 통합 안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통합 움직임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기총에서 갈라져 나간 한국교회연합(한교연)에서 뚜렷하게 감지된다. 양측 모두 통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데다 조만간 실무적 만남을 통해 구체적 실행 단계에 돌입할 태세다. 두 연합기구 간 접촉은 최근 한기총 총회에서 대표회장 연임에 성공한 전광훈 목사의 선언에서 촉발됐다. 전 목사는 지난달 30일 대표회장에 추대된 직후 "한 달 내에 한교연과 완전한 통합을 이뤄 내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전 목사는 특히 "양측이 날짜를 잡아 연합총회를 열 예정"이라고 덧붙여 양측의 사전 교감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는 4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교연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조만간 양측이 각각 임원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통합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교연 사무총장 최기수 목사도 "사실상 양측의 통합은 지난해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며 "한기총과 한교연의 부활절 연합예배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기총·한교연 통합 움직임은 최근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속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가 한기총에 내렸던 행정보류를 해제하

겠다는 입장을 밝혀 힘을 얻는 모양새다. 기하성은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 발표 등을 이유로 한기총에 대한 행정보류를 결정했지만 최근 '연합기관 대통령'을 조건으로 해제를 결정했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다음달 기하성 실행위원회가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이런 통합 움직임을 놓고 개신교계에선 일단 긍정적인 반응과 회의적인 시각이 엇갈린다. 보수 개신교계의 숙원인 전체 통합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한편 완전 통합엔 걸림돌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우선 한교연에 가입원서를 낸 교회 상당수가 공금회령과 업무방해 혐의로 전광훈 대표회장을 고발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또 개신교계 최대 보수연합체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양 기관 통합에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기총의 정체성에 회의적인 데다 한기총·한교연 모두 보수 군소 교단들이 가입한 연합체인 만큼 한국 전체 개신교의 통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는 눈치다.

한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지난 4일(화) 회의실에서 제9-1차 임원회를 열고 한기총과의 통합의 건을 심도있게 논의한 끝에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에게 전권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한기총과의 통합 문제는 지난 1월 30일 개최된 한기총 총회에서 대표회장에 연임된 전광훈 목사가 "먼저 한교연과 한 달 내에 통합을 하고 한기총까지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사무총장 최기수 목사가 그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두되었다.

이날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통합 건에 대해 참석한 임원 모두의 의견이 중요하며 한 사람씩 의견을 청취했다. 임원들은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과 신중하게 진행하자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뉘었으나 사무총장으로부터 그간의 경과를 들은 후 대표회장에게 전권을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이 문제를 상임회장단이 포함된 통합추진위(위원장 송태섭 목사)와 사무총장과 긴밀한 협력하에 위임해준 사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영철기자

# EXPLO2020 통일선교대회 위한 리더십 확대회의 열려

##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파주 솔수양관에서 열렸다.



▲ 지난 EXPLO선교대회 당시 사진. ©세계성서화운동본부 제공

EXPLO2020 통일선교대회를 위한 리더십 확대회의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파주 솔수양관에서 열렸다.

CBS가 주최하고 한국CCC와 경기북부기독교총연합회, CBMC 경기북부연합회가 주관하는 'EXPLO2020 통일선교대회'는 오는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파주 평화누리공원에서 진행된다.

CCC는 "본 대회를 전후해 CCC와 경기 북부 교회들의 다양한 연합 사역이 펼쳐질 예정"이라며 "주여 하나되게 하소서'(ONENESS IN CHRIST)라는 주제처럼 한국 교회의 연합, 지역과 세대의 연합, 한민족의 연합을 통한 통일한국을 꿈꾸는 한국교회 전체의 부흥 축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한국CCC 전국 책임간사 모임을 겸해 열린 이번 회의에는 'EXPLO2020 통일선교대회'를 공동개최하는 경기북부기독교총연합회(이하 경기북총) 소속 목회자들과 한국기독교실업인회(CBMC) 경기북부연합회 임원 등 200여 명이 모여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착수했다.

박동찬 목사(공동준비위원장, 일산광림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모임은 이성복 장로(재정위원회 공

동위원장)의 기도로 문을 열었다. 이성복 장로는 "통일선교대회는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이 민족을 위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이라 믿는다. 우리가 회개와 감사로 이 대회를 치르며, 오늘 회의를 통해 우리 각 사람이 무엇으로 이 대회를 섬길 것인지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해 달라"라고 기도했다.

이어 설교를 위해 단상에 오른 임다윗 목사는 겔 36:37 말씀을 바탕으로 "통일선교대회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모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며 "조국 통일을 위해 지난 70년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쌓았는지 모른다. 북한의 20만 지하교회 성도가 기도하고 있다. 그 기도의 분량이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통일선교대회가 이 기도 위에 통일의 물꼬가 터지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게 되기를 축복한다"고 했다.

이어 환영사를 전한 박성민 목사(공동대회장, 한국CCC 대표)는 "이 시대는 전 세계가 이념과 경제로 분열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져 있다. '하나됨'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대"라며 "우리 모두가 하나되는 모습으로 준비해 나가길 소망한다. 그럴 때



▲ 지난 13일 파주, EXPLO2020 통일선교대회를 위한 리더십 확대회의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CBMC를 대표해 환영사를 전한 연명흠 장로(공동대회장, CBMC 중앙회 사회공헌 위원장)는 "CBMC에서는 매주 월요일, 통일선교대회 준비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벌써 27회째 모임을 가졌고, 이제 18번 기도회를 하면 통일선교대회가 열린다"며 "2020년이 북을통일의 원년이 되고 대회가 축제의 장, 통일의 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자 자리에 함께한 한국CBMC 중앙회 이승용 회장은 "통일선교대회는 하나님께서 통일 시대를 우리 가슴 앞으로 당기시는 시간이 될 것을 믿는다"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위대한 역사를 이뤄주시길 믿고, CBMC도 함께 기도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기도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공동준비위원장인 이연균 목사(CCC SLM 팀장)는 저녁집회, 마마클럽 기도 운동, 111기도법, 도시복음화 프로젝트 및 도시전도, 목회자 및 평신도 세미나, 청소년 수련회, FWIA 비즈니스 세미나, 통일선교박람회, 통일 인간 띠 잇기 등

통일선교대회의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했다.

이밖에 의정부 지역 연합회의 대회 준비 사례 나눔과 대회 전후 프로젝트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와 본 대회 일정 소개, 질의응답 후 합심기도회가 준비됐다. 기도회를 인도한 박정호 목사(대회 준비위원회 공동부위원장, 순복음의정부교회)는 "선교대회를 주관하는 각 단체의 연합을 위해서, 대회 모든 진행 과정의 안전을 위해서, 대회 진행을 섬기는 리더십을 위해서, 그리고 평화적, 복음적 통일을 이뤄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했고, 회의장에 모인 200여 명의 참가자들은 마음을 모아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이튿날에는 한국CCC 책임간사들이 도시 전도 전략 수립, 대회 준비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질의응답을 나누고 EXPLO2020 통일선교대회가 열린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을 찾아 직접 수련회장을 둘러보고 땅을 밟으며 기도하는 여호수아기도회를 진행했다.

강영철기자

### 대신교회협동신문

발행인 강대석 대표 최준환 주필 박근상  
등록번호 경기, 다 50524 등록일 2016년 4월 19일  
편집국장 강영철 광고국장 김용백 영입국장 이창복 인쇄인 이병동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 주제: 교회는 21세기 대변혁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정창덕  
숭호대학교 총장

## 1. 서론

4차산업혁명시대는 스마트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스마트시대는 IT에 머무르지 않고, ICT(정보통신기술)의 진보, 더 나아가 DT(데이터 기술)까지 바라보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미래사회는 초연결화, 지능화, 스피드, 융합을 통한 스마트융합 시대의 도래를 활짝 여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노동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시 말하면, 1차산업인 농업화 시대에는 육체노동이 지배하는 경우였다면, 정보화시대에는 두뇌경제시대로서 정신노동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 사회의 핵심 가치는 실생활 속에서 감성노동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4차산업혁명시대의 작품종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가 전 세계적으로 건설되는 중에 있으며, 일부 서비스가 상용화되고 있고, 스마트시티는 세계적으로 약 200조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미래 이미징 산업 가운데 핵심중의 핵심 산업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관련,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스마트 기술들은 대표적으로 스마트 시티, 빅데이터, AI(인공지능), 블록체인, IoT(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DT(데이터 기술) 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스마트시티에서는 스마트헬스케어, AI로봇, 첨단전자정보조시스템(ADAS), 분산에너지 생산기, AI기술 기반의 신기술, 데이터 기술 등을 핵심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기술에 대한 상세한 소개나 설명은 추후 기사가 있으면 소개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교회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 2. 4차산업혁명시대의 교회의 방향

### ① 이 시대의 교회 존재 이유

지금까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역할 또는 기능이 이대보다 좋은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아울러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기대한 것이 많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변화하는 속도가 너무나 빨라 우리가 따라가기에 너무나 벅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모습은 도덕적, 윤리적 타락으로 인하여 사회의 지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앞에 도래할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교회가 직면해야 할 문제보다는 조금은 덜 심각하다 말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교회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진리"에 대한 도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특

히 인공지능(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의 삶의 전체 패턴을 바꾸고 이것들이 바로 근본적인 질문을 교회에 던지게 될 것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창조, 자연과 인간, 그리고 신학과 과학이라는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강하게 요구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하여 교회는 성경적인 측면에서, 신학적인 측면에서 특히 하나님의 창조론적 측면에서 질문에 대하여 주어야 하는 답을 찾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에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인공 지능은 지금까지는 인간만의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대부분의 영역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많은 새로운 일을 실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심지어 우리 모두가 신의 영역이라고 인정한 부분에서까지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시대가 머지않아 도래 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딥러닝(심층학습)을 하지 않고도 인간처럼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이보그'의 출현이 시나마가 아닌 현실에 출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를 사는 오늘날의 교회는 변화의 물결에 어떤 전략으로 대처하며, 무엇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겠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교회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그러한 전략과 실행 계획이 교회 자체에 부재하다면, 그것을 신속히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예상되는 문제들은 교회의 미래의 기둥인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쳐서 교회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는 교회를 등지고 떠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게 할 수 있다고 보여 지며, 이것은 바로 교회의 미래를 어둡음으로 이끌어 가게 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과학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여도 과학기술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할 수 없고, 신의 영역을 결단코 넘어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과학 기술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닌 인간의 연구를 통하여 하나의 이론에 기반하여 개발되고 만들어진 제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입증하여 진리를 밝히 드러내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생명윤리에 대하여는 다음의 ④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② 이 시대의 개혁주의 신앙과 신앙교육

4차산업혁명시대에 급속하게 변화하는 기술이 신학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당면한 문제는 신학이 변화되고 있는 시기에 교회에서 개혁주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내고 신앙교육을 해야 하는지 깊은 연구와 적절한 방안을 제시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교회가 4차산업혁명시대에 개혁주의 신학과 복음전도가 직면한 현실을 올바르게 직시하지 못한다면, 교회의 미래와 비전은 긍정적 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훨씬 많다고 필자는 생각하는데 이것이 기우였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질문이나 토론이 거의 없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사회 환경으로 인하여 가정에서도 가족 간의 대화의 시간이 줄었거나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식사 시간에도 모바일을 보지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사회적 상황을 보면, 이에 대해 교회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실질적 비전을 주면서 미래를 준비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교회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질문하고 말씀 안에서 묵상하도록 하여 교회의 신앙 교육은 세상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묵상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회의 신앙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출3:13) 물었으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16:15) 물으셨는데 이와같이 우리도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때, 교회는 이에 대한 정답을 개혁주의 신앙측면에서 줄 수 있는 영적 교육기관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자가 생각하는 방법은 첫째, 창의적 신앙교육을 통하여 영적인 힘을 키워주는 방법을 찾아내어 실천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대변혁의 시기에 생존이 가능한 사람은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묵상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4차산업혁명시대의 힘은 말씀 묵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의 최대 화두인 AI(인공지능)는 수많은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고 이를 저장하여 처리하도록 사람들이 R&D(연구개발)를 통하여 만들어낸 솔루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감성이 없으며 스스로 생각하는 기능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신이 왜 신앙을 가져야 하고, 자신이 무엇 때문에 꿈을 가져야 하는지 자신에게 질문하고 자신이 답을 얻도록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인공지능과 다른 커다란 차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자신의 비전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쁜 습관 한 가지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듯이 우리들도 묵상하면서 주께 기도하면 변화가 시작되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때, 자신에게 끊임없이 왜 나는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 갈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도록 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에 기반한 신앙교육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는 길잡이이며 등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 보여 집니다.

### ③ 4차산업 혁명시대-인공지능 로봇이 설교하는 시대의 도래

4차산업혁명시대의 최대 관심은 AI(인공지능)라는 것은 위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무엇이고 인공지능 로봇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백과에 의하면 "인공지능이란 사고나 학습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이다. 인공지능은 개념적으로 강 인공지능(Strong AI)과 약 인공지능(Weak AI)로 구분할 수 있다. 강AI는 사람처럼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한 자아를 지닌 인공지능을 말한다. 인간처럼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서 범용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이라고도 한다. 강AI는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인간형 인공지능과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지각·사고하는 비인간형 인공지능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약AI는 자의식이 없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주로 특정 분야에 특화된 형태로 개발되어 인간의 한계를 보완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된다.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AlphaGo)나 의료분야에 사용되는 왓슨(Watson)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까지 개발된 인공지능은 모두 약AI에 속하며, 자아를 가진 강AI는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다음백과).

다음으로 인공지능 로봇의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은 프로그램 형태로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로봇에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구현할 때도 있는데, 이 두 단어를 합하여서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 했는데 그렇다면 인공지능 로봇이 교회에 미칠 가장 큰 영향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설교" 분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결합하면 인공지능 설교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러한 로봇이 상용화되어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설교가 예배의 중심인 개신교의 예배는 큰 타격을 넘어서 혼란에 빠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세계 기독교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IT 매체 씨넷은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로봇 목사인 브레소유트(BlessU-2)로봇이 공개됐다고 보도 했습니다. 이 로봇은 5개 언어(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폴란드어)로 유창하게 설교하는 로봇목사이며, 성도들에게 축복하기 위해 든 로봇의 손에서는 광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인공지능 로봇이 교회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의 일부는 제시할 수 있으나, 전체를 감당하거나 특히 목회자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에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생명 자체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가 되거나 감정을 가지고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는 주체인 인간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 ④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교회의 미래

4차산업혁명의 특징은 초연결성, 초지능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하며 급속한 변화에서 교회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초연결과 초지능 중심의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교회의 게토화(ghetto)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현재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모든 면에서 교회역사상 가장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보여 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은 어떤 면에서 자신보다 뛰어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은 많은 영역에서 인간이 세운 기록들을 깨면서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까운 미래에는 인공지능의 적용분야가 거의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상용화되어 엄청난 속도로 미래의 사회에 대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온 인류에게 크나큰 재앙으로 돌아올지 아니면 큰 희망을 주게 될지에 대

집중하거나 분주하지 말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교회의 나아갈 방향은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로봇이 절대로 대신할 수 없는 영혼의 내면과 영성에 명쾌한 답을 찾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목회가 되어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 ⑤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교회의 역할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라고 하는 것이 어울립니다. 이를 대변하는 것이 TGIF(twitter, Google, IPone, Facebook)인데 이는 스마트 미디어 환경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의 영향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기독교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는 층은 교회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목회자들, 신학자들, 신학생들, 그리고 성도들 개개인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미디어의 종류는 블로그, 유튜브, 오디오/비디오의 융합 등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교회에서 목회자의 설교를 방송하기 위하여 교회 자체 미디어(유튜브나 팟캐스트)나 앱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 개인의 활동과 관련된 묵상, 신학적 내용의 글, 중보기도, 성경 공부 그리고 헌금 모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의 이용을 통하여 쌍방향 의사소통이나 개인적인 친교 측면은 강화되는 긍정적 영향을 기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교회에서의 공예배나 기도 생활, 오프라인 상에서 교류 그리고 개인의 경건 생활 등의 약화 초래 또는 논쟁의 격화, 감시 또는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의 부작용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미디어 시대는 이미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교회들과 성도들은 이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스마트 미디어를 선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배워서 이로 인하여 위협에 빠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교회들과 성도들 사이에 스마트 미디어의 오남용자체를 막고, 악용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 ⑥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교회의 미래

4차산업혁명의 특징은 초연결성, 초지능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하며 급속한 변화에서 교회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초연결과 초지능 중심의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교회의 게토화(ghetto)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현재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모든 면에서 교회역사상 가장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보여 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은 어떤 면에서 자신보다 뛰어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은 많은 영역에서 인간이 세운 기록들을 깨면서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까운 미래에는 인공지능의 적용분야가 거의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상용화되어 엄청난 속도로 미래의 사회에 대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온 인류에게 크나큰 재앙으로 돌아올지 아니면 큰 희망을 주게 될지에 대

한 판단은 이르다고 보여 집니다. 인간이 세상의 중심인 휴머니즘 시대를 지나서 트랜스 휴머니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휴머니즘은 인공지능과 로봇을 이용하여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성질과 능력을 개선하고 확장하려는 사상입니다.

과거에는 초지능성, 초연결성, 영속성 등은 신적 영역이었지만, 지금은 사람이 인공지능의 딥러닝(심층학습),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대가 추구하고 목표하는 인간 중심주의는 기독교의 신관과 맞먹는 충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학기술은 이 시대의 바벨탑이 되는가? 또는 모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결책이 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짚개는 향후 약 5년은 교회의 존재에서 운명을 가를 시기가 되리라고 보여 집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교회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그 답을 찾기 위하여 쉬지 않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없는 교회에는 답을 기대할 수 없고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는 교회는 내일을 장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 3. 맺는말

4차산업혁명 시대에 과연 기독교의 정체성과 교회의 정체성은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교회는 미래에 다가올 시대에는 개인의 가치와 능력이 여러 면에서 극대화 되게 될 터인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심각하고 급속한 변화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을 위한 "진리"를 전파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선교적 전략을 준비하는 지혜와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와 관련 교회는 자의식을 가진 인공지능 로봇에도 영혼이 있는가? 구원이 있는가? 인공지능 로봇은 과연 사회적 주체로서 포함이 되는가? 인공지능이나 인공지능 로봇이 영적인 것을 가지고 전달이 가능한가? 트랜스휴머니즘 시대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말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에 대하여 답을 찾아 알려주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과 기능을 감당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까지의 역사적이고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변화들은 크나큰 축복임과 동시에 인류에게 상상 이상의 재앙을 불러 올 수도 있는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학기술 만능주의로 흘러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은 제외되고, 그 자리에 인간이 자리 잡는 우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온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인공지능과 같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변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모든 면에서 진지한 자세로 깊이 생각하고 준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가장 시급한 당면한 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외면하거나 모른 체한다고 하여 교회와 전혀 관계없는 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이 상 -

정창덕/숭호대학교 총장

# 대신의 정체성

## 강대석목사(청운교회, 총회장)

### 1. 개척정신: 가서 우물을 파라

### 2. 애국정신: 한국의 예레미야

### 3. 기도운동: 이 민족 삼천만

### 4. 대신이 나아갈 길: 회복과 화합



#### 1. 개척정신: 가서 우물을 파라

김치선박사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민주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대한신학교 졸업생들에게 '2만8천 동네에 가서 우물을 파라'는 말을 강조했다. 그 당시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수는 3,000 교회가 안 되었다. 더욱이 한 교단에 하나씩만 신학교를 허용했기 때문에 총회에서는 몇몇몇 총회 신학교가 있다며 대한신학교를 인정 해주지 않는 분위기였다. 그러다보니 졸업생도 마땅히 사역할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삼은 김치선박사는 대한신학교 졸업생들에게 일할 수 있는 교회가 없으면 도리어 전국 방방곡곡에 나아가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하라고 가르쳤다. 전국 2만8천 동네에 교회를 세워 이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그는 이 민족의 십분의 일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결심하여 삼백만부흥전도회를 결성하였다. 70인의 전도목사들을 전국에 파송하여 큰 역사를 시작하였는데 그 중에는 박재봉 목사, 이성봉 목사, 손양원목사들이 있었다. 이 운동은 6·25전쟁이 일어나는 순간까지도 계속되었다.

이렇듯 구령의 열정 그리고 개척과 도전정신으로 대신교단은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교단 등이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와 그 이전에 있던 교회들의 분열을 통하여 교단이 구성되었던 반면에 대신교단은 순전히 졸업생들이 개척과 도전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 설립하고 그 교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한국인에 의해, 한국인의 힘으로,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진 자생교단이다. 이러한 개척정신은 앞으로도 우리 대신교단의 정체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 편한 길을 쫓는 시대적 상황을 따를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신 그곳이라면 영적 야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대신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발자취를 보여주었던 믿음의 선배들과 달리 현재 교회들마다 믿음의 야성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다. 무엇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야성을 사라지게 할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영혼구원에 대한 무관심이 신앙의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본다. 영혼구원에 대한 무관심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우

리의 관심과 생각을 변질시키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관심과 생각이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

교회원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외적 풍요로움과는 대조적으로 내적으로는 빈곤함을 호소하는 주변의 영혼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외적 자유로움과는 대조적으로 내적으로는 결박된 채로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주변의 영혼들의 영적 상태에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의 본질은 영혼구원에 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교회의 비전이며 목적이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영혼구원이라는 목적에 기반 되어져야 한다.

희망도 소망도 없던 이 땅 가운데 구령의 열정과 개척정신 그리고 도전정신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우리 대신교단은 만들어졌으며 지금까지 울 수 있었다.

이제 지금 우리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고대한다. 다시 우리 대신인의 중심 가운데 '2만8천 동네에 가서 우물을 파라'는 간절한 구령의 열정과 개척정신 그리고 도전정신이 샘솟기를 바란다.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데에 앞장서는 대신교단이 되기를 고대한다.

#### 2. 애국정신: 한국의 예레미야

김치선박사는 당시 한국의 예레미야로 불리었다. 설교와 강의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항상 눈물로 호소하셨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다.

그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나라가 망해서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앞장섰다. 21살에 학생대표로 함흥의 영생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3·1운동을 준비하다 일본경찰에 구속되어 서대문형무소에 1년간 복역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유학을 마치고 일본 동경에서 신숙중앙교회 사역을 할 때에 일본이 조선인을 내선일체라 하면서 조선인교회를 구속하기 시작했다. 조선사람도 내선일체이니 교회에서는 일본말로 설교해야한다는 것이었는데, 교회의 중직자중 한사람이 김치선박사가 조선말로 설교했다고 신고를 하여 수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고국으로 돌아와 남대문교회로 부임하

셨을 때에 그 무섭고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매일 새벽마다 강단에 섰다. 그리고 해방되었을 때에 신앙의 자유로 인하여 강단에 설 때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었다.

그는 일제하에서는 나라와 민족의 서러움으로 우셨고 해방 후에는 기뻐서 우셨고 망해가는 심령을 위해서 우셨다. 그는 새벽마다 해방의 기쁨과 우리 민족을 향한 구원의 문제, 특히 한국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부르짖었다.

그는 민족과 나라 사랑의 길은 복음전파를 통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한국을 복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는 3천만명이었는데 우리 민족의 십분의 일인 3백만명을 하나님께 바치자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다. 그러기 위하여 2만8천동네에 교회를 세워질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셨다.

김치선 박사가 보여주었던 들끓는 나라사랑은 우리 대신인들이 품어야 할 귀한 정신이 되어야 한다. 이 땅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때로는 적극적인 신앙고백을 통하여 나아가야 한다.

정교(政敎)분리라는 용어의 왜곡은 거의 대다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해 무관심이 곧 경건이라는 등식으로 오해하도록 만들었다. 정교분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반대로 정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이원칙은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억압받았던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신대륙으로 건너가 국가를 세운 청교도들이 이런 종교 박해가 신대륙에서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를 위한 원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상당수의 교회와 교단들이 민족과 나라 문제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너무나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정치참여를 비난하거나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또한 보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성경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통치자들에게 그 시대 시대마다 영적지도자들이 통치자와 권세자, 사람들 앞에서 신앙의 목소리를 내었던 것을 보게 된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통치자들이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한다. 하지만, 목사에게는 제사장직도 있지만 선지자직도 있는 것이다. 선지자는 시대적 상황을 읽으며 때로는 하나님 주권을 훼손하려는 본격적인 움직임들에 대해서는 기도를 넘어서 신앙고백을 통하여 목소리를 낼 줄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였다. 일제강점기 영적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만 하지 않았다. 학생대표로서 참여했던 김치선박사 뿐만 아니라 3.1운동을 주도한 지도자의 상당수

가 목사였으며, 그리스도인이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의 만행에 맞선 분명한 목소리와 구별된 믿음의 행동을 보였다.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 독일 내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나라를 향하여 그 어떤 신앙고백을 통한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독일의 그리스도인들과 영적지도자들은 히틀러의 만행 앞에 침묵했다. 그들이 분명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기도에 따른 분명한 목소리와 구별된 믿음의 행동 등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다. 그들은 정치에 무관심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끔찍한 역사를 남겼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의 한구석 구석에서 빛을 내고 맛을 내어야 한다. 사회 각 영역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신앙고백을 통하여 세상이 추구하는 인간중심적인 생각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려줄 사명이 있다. 세상 가운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치라고 한다면 신앙고백을 통한 정치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사명이다.

지금 우리는 유럽을 필두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된다. 그 나라 안에 하나님 주권이 완전히 무너지고 국민 주권의 목소리가 대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무너지고 성경적 가치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유럽 대다수의 국가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 할 때 교회지도자들은 아무런 반대도 할 수 없었고 지지해버렸다. 그로인해 유럽에서는 부부가 아이에게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는 교육을 했다가 양육권을 박탈당하거나, 노방전도를 했다고 고발당해 체포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하나님이 진노할 가슴 아픈 일들이 우후죽순처럼 퍼져나가고 있음에도 그 누구 하나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각 영역에서 신앙고백을 통한 정치참여를 반드시 해야 한다. 국가가 본래의 목적인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선한도구가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주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은 성경이다. 이 성경을 통해 나의 생각,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정치에 참여하는 태도 등이 결정되어야 한다. 작은 부분부터 민감한 주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와 신앙이 이원론적이라는 데 있다. 우리 안에 신앙과 정치를 각각 개별적으로 가져가려는 모순점이 있다. 올바른 성경해석을 통한 기독교 세계관과 그 관점으로 해석된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영향받은 가정, 지역, 학연 등에서 파생된 생각들로 여전히 정치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내가 지향하는 정당의 목소리 가운데 분명 성경적이지 않은 목소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함에도 신앙과 별개로 무조건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지지하는 일들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명백히 금하고 있는 낙태, 간음, 동성애, 무신론, 유물론 등을 지지하거나 정책적으로 실행하려는 정당과 정치인은, 자신이 지지하고 좋아했던 자라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평소에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이라고 해도 그가 명백하게 성경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려고 한다면 무조건 그 정당과 정치인을 따를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도리어 그에게 무조건적 지지가 아닌 비판적 목소리도 낼 줄 알아야 한다.

목회자는 때로는 정치적으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모습을 줄 수 있는 발언이라고 해도 그것이 성경적 가르침에 부합한다면 바른 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한다. 소신 있게 성경적 가르침을 분명히 말씀해주는 목회자가 목회자지, 사람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눈치를 보고 바른 것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 목회자이겠는가?

정치는 중요하다. 내가 선택하고 다수가 선택한 통치자가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정치에 더 이상 무관심하거나 한쪽에만 편향된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통치자들을 끊임없이 예의주시하여 그들의 하고자 하는 정책들과 방향들이 하나님 주권과 상충된다면 때로는 한 목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의 눈치라도 보게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대신인이 가져야 할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애국정신이라 하겠다.

#### 3. 기도운동: 이 민족 삼천만

김치선박사는 남대문교회에 부임하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하였는데 기도 때마다 '이 민족 삼천만'이라고 외치면서 민족을 향한 기도운동을 전개하였다. 남대문교회로부터 시작한 이 새벽기도의 물결은 전국교회로 확산하게 되었고, 새벽기도가 한국교회의 독특한 예배양식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리고 전후 후 삼각산에 기도원만 있던 시절에 성도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기도원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현재 서울대 기숙사 자리에 베델기도원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대형천막을 치고 집회를 하다가 산을 깎고 기도원에 올라온 모든 사람들이 강에서 돌을 운반하여 하나하나 쌓아 올려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다. 예배당 건축 이후 수많은 성도들이 모였고, 많은 성도들이 밤을 새면서 기도함으로 산에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밤새 울려 퍼졌다. 그 기도의 흐름이 우리 신학교 다닐때도 주경야독하며 매주 목요일 저녁 강의가 끝나면 가짜 제일교회에서 내어준 버스를 타고 삼각산에 올라가 밤새워 기도하지 않았던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물려주었던 새벽기도,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 등의 기도

에 힘쓰던 모습들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리었던 모습들이 상당부분 사라져 가고 있다. 우리의 의식 속에서도 시대가 바뀌었는데 꼭 그렇게 티 나고 유별나게 기도에 힘을 필요로 있는가 라는 생각들과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신념대로 조용하고 고상하게 믿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생각들이 알게 모르게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누군가가 보이게는 과도하다고 생각이 드는 그 행위들이 시대의 한 획을 그었던 위대한 믿음의 역인들이 되었음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기도에 힘썼던 과도하고도 무모한 그 행위가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많은 영혼을 건지는 한 획을 그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풍요로운 삶과 달리 빈곤한 기도로 일관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때에 다시 기도의 풍요가 우리 대신교단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김치선박사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우기 위하여 눈물 흘렸던 그 기도가 바로 우리를 통하여 다시 시작되기를 바란다.

#### 4. 대신이 나아갈 길: 회복과 화합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기독교인들이 밀려오고 있었고 평양신학교를 다니던 신학생들도 있었다. 이 때에 김치선박사는 신학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게 되고 1948년 남대문교회에서 야간 신학교를 세우게 된다. 대한신학교의 전신이다.

그 후 장로교 총회신학교에 파병싸움이 일기 시작할 때에 1961년 김치선박사는 세계 기독교 보수체인 I.C.C.C의 메킨 타이어와 손을 잡고 성경장로회를 조직하여, 대한신학교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대신 교단으로서 출발하였다.

그러던 중 1968년 김치선박사가 소천 후 신학교운영문제와 성경장로회가 분리되어 나가는 일이 발생하였지만, 여러 우려곡절 속에서도 남은 40여개 교회를 필두로 대신교단은 도약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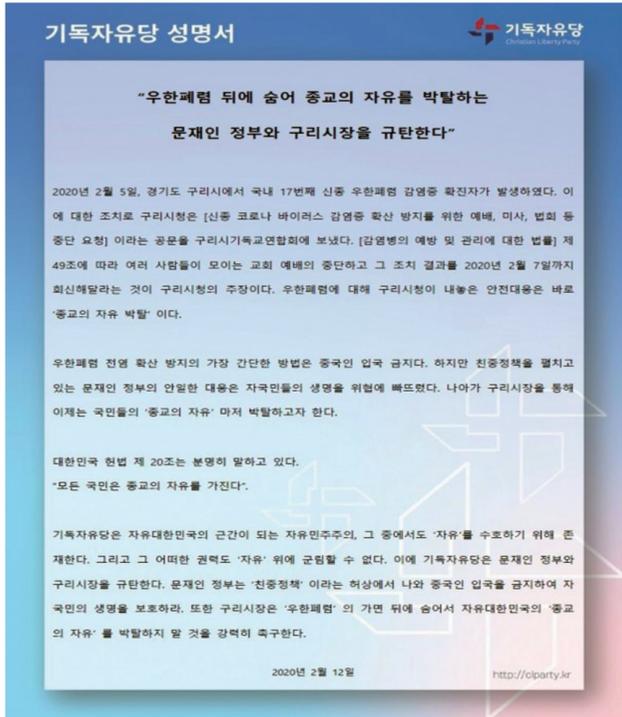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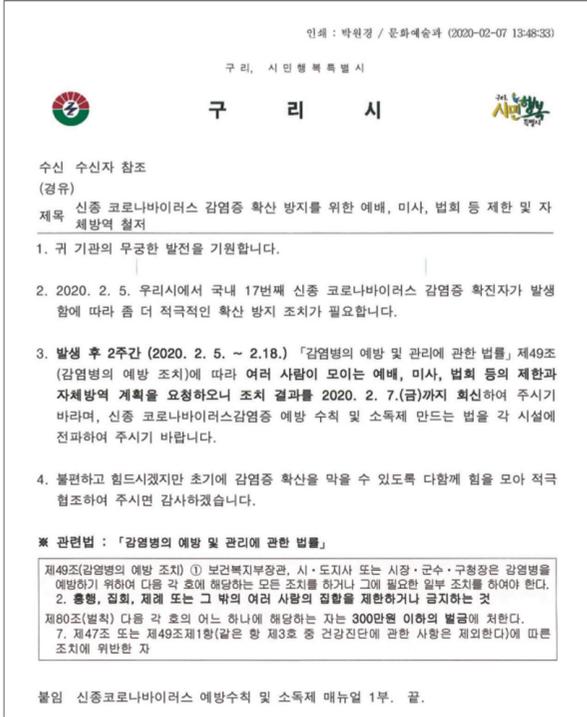
그리고 지금 우리 대신교단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분열과 반목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예정백석과 추진했던 통합이 끝없는 갈등 속에 실패로 돌아간 이후 현재 대신수호측, 백석대신측, 예정대신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자랑스런 자생교단으로서 대신교단이 가졌던 정체성과 가치들이 훼손되는 시점에 와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일 수 있다. 다시 우리 대신교단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고 잘못되었던 병폐와 폐단을 회복하고 변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순간을 맞이했다고 볼 수도 있다. 대신대신이라는 이름이 한국교회 교계 속에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남겨진 우리 대신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틀을 재검토하고 새롭게 세워나가기를 바란다.

총회장 강대석목사

# 구리시청에서 구리시기독교연합회 앞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예배 등 제한 공문 보내

## 기독교자유당, 우한폐렴 뒤에 숨어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문재인 정부와 구리시장규탄 성명 발표 법적조치 강구



▲ 구리시청에서 구리시기독교연합회 발송공문(좌) 기독교자유당 성명서(우)

세계적 전염병인 코로나-19에 한국교회일부가 예배처소를 폐쇄, 전염병에 대한 교회의 대응방안을 sns 등에 올리는 등 성경의 기준을 무시하고 세속 정부와 마치 흥

보호과를 극대화 하는 것으로 전염병에 대처하는 것처럼 보여 기독교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7일 경기도 구리시청에서 구

리시기독교연합회 앞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예배 등 제한 공문을 보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공문을 접수한 구리시기독교연합회는 구리시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구리시기독교연합회 관계자는 "구리시기독교연합회 소속 교회들은 이 문서에 대하여 구리시청과 정부에 대하여 불편함을 드러내고 자체적으로 예방수칙을 잘지키고 있다."고 전했

다.

한편 기독교자유당(대표 고영일 변호사)는 지난 2월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도 구리시청(시장 안승남)이 구리시기독교연합회(회장 김희수 목사)에 보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주일예배 및 예배를 중단하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력 비판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독교자유당은 성명서를 통해서 “2020년 2월 5일, 경기도 구리시에서 국내 17번째 신종 우한폐렴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조치로 구리시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배, 미사, 법회 등 중단 요청’이라는 공문을 구리시기독교연합회에 보냈다”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 49조에 따라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예배의 중단하고 그 조치 결과를 2020년 2월 7일까지 회신해달라는 것이 구리시청의 주장이다. 이는 우한폐렴에 대해 구리시청이 내놓은 안전대응은 바로 ‘종교의 자유 박탈’이다”라고 비판을 했다.

또한 기독교자유당은 “우한폐렴 전염 확산 방지의 가장 간단한 방법은 중국인 입국 금지다”면서, “하지만 친중정책을

펼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응은 자국민들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렸으며, 나아가 구리시청을 통해 이제는 국민들의 ‘종교의 자유’마저 박탈하고자 한다”라고 지적을 했다.

이어 기독교자유당은 “대한민국 헌법 제 20조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면서, “기독교자유당은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그 중에서도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어떠한 권력도 ‘자유’ 위에 군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기독교자유당은 “이에 기독교자유당은 문재인 정부와 구리시청을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친중정책’이라는 허상에서 나와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여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라”면서, “또한 구리시청은 ‘우한폐렴’의 가면 뒤에 숨어서 자유대한민국의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동성애와 제3의 성 옹호하더니...”

###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긴급 성명서 발표 국민의 뜻 안중에 없다... 표 떨어질까 조레 재개정 추진 민주당, 종교단체 억압 대해 아무 문제의식 없음 드러나 조레명 포함, ‘성평등→ 양성평등’ 으로 전면 재개정하길



▲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재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경기도 도민연합에서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경기도민연합)’에서 15일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재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도민연합은 “작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총선 전에 절대 재개정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가, 총선이 2개월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재개정을 하기로 손바닥 뒤집듯 이전 결정을 뒤집었다”며 “도민의 민의는 안중에

도 없고, 이제서야 표 떨어질까봐 성평등 조례를 한발 흥정거리로 삼고자 하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에도 없는 ‘성평등’을 당강령 11번 항목으로 넣어놓은 더불어민주당은 도의회 96%를 차지하는 권력을 무기 삼아, 법 위에 군림하는 오만함을 보여왔다”며 “그동안 재개정 논의 과정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동성애와 제3의 성 옹호 정당’으로 당당히 커밍아웃했을 뿐 아니라, 경기도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고, 종교단체를 억

압하는데 아무 문제의식이 없음도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약 13만 7천여 명의 도민이 성평등 조례 개정청구에 서명해 주셨고, 그 심판의 칼끝이 더불어민주당을 겨누고 있다”며 “도민들은 ‘민심은 곧 천심’이라는 격언을 무시하며 오만방자히 행했던 도의원들의 행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한수기자

경기도민연합은 “행여나 작년 12월에 민주당 스스로 부결시킨 타협안 정도만 통과시키면 성난 민심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상황을 오판하지 말라”며 “‘성평등’과 ‘사용자’ 용어는 하나도 고치지 않은 채, 선심 쓰듯 의미 없는 내용만 몇 개 고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거짓에 도민은 두 번 다시 속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불타오르는 민심에 기름을 퍼붓는 우를 범하지 말라”며 다음과 같은 ‘13만 7천명 도민의 명령’을 제시했다.

첫째, 조레명을 포함하여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전면 재개정하라.

둘째, 조레상의 모든 ‘사용자’ 용어 및 사용자에게 성평등위원회 설치와 적극적 조치를 강요하는 조항을 삭제하라.

셋째, 성평등위원회 설치, 운영 비용을 도민 혈세로 지원하는 조항을 삭제하라.

끝으로 “도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어떠한 타협안도 수용할 수 없다. 13만 7천명 도민의 간절하고 결연한 뜻을 짓밟는 불의한 타협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서명운동은 이제 그 정점을 향해 치솟아 오르고 있다. 서명에 동참해 주시는 도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건강한 경기도를 지키라는 도민의 명령에 따라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끝까지 나아갈 것”이라며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 온천·수영로·부천·동신·범어... 대구·부산 교회들 ‘영상 예배’

### “일제와 6·25에도 예배 멈추지 않았는데... 초유의 일” 목회자들, 영상 설교에서도 같은 은혜 강조 코로나19 제양 속 하나님의 뜻 찾도록 권면 온천교회, ‘심려 끼쳐 송구’ 홈페이지 게재



▲교역자들만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대구 범어교회 모습. ©홈페이지

114년 역사의 대구 수성구 범어교회(담임 장영일 목사)도 인터넷으로 예배드렸다. 그는 “주일마다 이 자리에 가득 찼던 성도님들, 치료의 광선 속에서 안병하시고 건강하시고, 이런 중에서도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 되시길 소망한다”며 “여러분들이 참 보고 싶다”고 말했다.

대구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장영일 목사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합 3:2-8)’이라는 설교에서 “우한 대신 코로나로 쓰자”고 해놓고, ‘대구 코로나’라고 한다. 타 지역에서는 대구에 왔다 간 성도들을 2주간 교회에 못 나오게 한다고 한다.

대구가 역술한 이름, 슬픔의 도시가 됐다”며 “사실 남들이 뭐라든, 대구에 사는 우리 속에 불안이 가득하다. 적지 않은 분들이 밤잠을 못 이루시고, 갑자기 몸이 아프다는 성도님들이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장 목사는 “돌아보면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은 해가 없었다. 세상의 위기들은 다 지나가는 바람 같고 흘러가는 강물 같다. 그 순간에는 죽음이 코앞에 와 닿은 것 같았지만, 돌아보니 다 지나갔더라”며 “우리의 시선을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한다. 그래야 분초마다 바뀌고 성하다가 쇠하고, 기뻐다가 슬픈 이 세상을 견뎌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연재] 이승만 시대(3) 서재필을 만나다...민비시해 사건후 도피생활

해양문명권에서 교육받은 서재필을 배재학당에서 만나다



▲ 서재필 (미국명 Philip Jaiso hn: 1864-1951) 전남 보성 출생. 갑신정변후 1890년 미국 귀화. 조지워싱턴 대세군학 학사.

이승만은 배재학당에서 위대한 스승 서재필(徐載弼)을 만났다. 서재필은 1884년에 갑신정변을 일으킨 혁명가의 한 사람으로, 쿠데타가 실패한 후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해 한국인 최초의 의학 박사가 된 개화파 지식인이었다. 그는 조선왕조에게는 역적이 되었으므로 귀국할 수 없는 신세였다. 하지만, 1894년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그에 따라 유길준(俞吉濬)을 비롯한 개화파가 정권을 잡게 되면서 1895년에 귀국하게 되었다. 그는 10년만에 중추원 고문 자격으로 미국인 부인과 함께 왔다. 서재필은 배재학당에 강사로 나오면서 '협성회'를 조직하고,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민주주의적인 방식을 가르쳤다. 모임에는 정부 관리들도 참여했다. 이승만은 그 모임의 기관지인 <협성회보>의 편집장이었다. 당시 고종과 그 왕비인 민비에 의해 주도되고 있던 허약한 조선왕국은 강대국들의 사냥터가 되어 가고 있었다. 특



▲ 미국서 열사구국단 서재필이 1896년 개화파와 함께 발간한 독립신문. 영문판도 제작했다.

히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에 대해 가장 큰 야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무능과 부패, 궁중음모에 휩싸인 조선왕조는 대책 없이 하루하루 표류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협성회의 토론 주제는 조선의 독립 보존이나 제도 개혁과 같은 정치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인 선교사들과 교사들은 그들의 정부 비판을 항상 불안한 눈초리로 보게 되었다. 그 때문에 회원들은 미국인 교사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보다 더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1896년 6월부터는 학교 밖에서 독립협회(獨立協會)로 모이게 되었다.

서재필은 뒤이어 한글과 영어로 <독립신문>을 발행하면서 한국인들의 머리에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을 불어 넣으려 했다.

을미사변에 뒤이어 출생문 사건으로 도피생활

열강의 압박으로 독립유지가 어렵게 되어 가자, 조선왕실은 점차 러시아에 기대를 경향을 보였다. 고종과 민비가 러시아를 강한 나라로 믿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1894년의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여 요동반도를 빼앗았지만 러시아가 프랑스,독일과 함께 압력을 넣어 되돌려주게 되었는데, 그러한 3국간섭의 위력에 조선왕실이 감탄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은 이러한 조선왕실의 친(親) 러시아적 성향을 돌려 놓으



청년 이승만

려 했다. 그리하여 1895년 10월 일본

인 불량배들을 경복궁으로 들여보내 정권의 실세인 민비(閔妃)를 살해하고 국왕 고종을 유폐시키는 을미사변을 일으켰다.

백성들은 일본군의 만행에 분개했고, 그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이승만도 분개한 백성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러자 1895년 11월 이도철을 중심으로한 일부 군인들이 춘생문을 통해 국왕 고종을 경복궁으로부터 탈출시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시키려는 비밀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계획을 실천에 옮겼지만, 궁궐 안에서 호응하기로 했던 세력이 움직이지 않아 실패하고 말았다. 이른바 '춘생문 사건'으로 이도철 등은 처형당했다.

이승만은 그 사건의 주모자의 한 사람인 이충구의 친구였기 때문에 목숨을 피해야 했다. 그래서 의료선교사인 조지어나 파이팅 양의 도움으로 머리에 붕대를 감아 여환자로 변장한 다음, 양화진의 지킴스 부인 집으로 숨었다.

그리고는 걸어서 누님이 있는 황해도 평산으로 가서 3개월을 숨어 있었다. 이충구는 사형은 면했지만 평안도로 귀양을 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정세는 이승만에게 유리해졌다. 1896년 2월 고종이 일본군의 감시망을 피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함에 따라(아관파천), 친러시아적이면서도 친미적이기도한 새 내각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이승만도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리고는 학업을 계속하여 1897년 7월에 배재학당을 졸업했다. 배재학당 졸업식은 정부 대신들과 주한 외교 사절들도 참석한 거창한 행사였다. 그 자리에서 이승만은 졸업생 대표로서 유창한 영어로 '한국의 독립'이란 제목의 연설을 했다. 참석자들은 감동했고, 거의 모두는 그가 장차 한국을 이끌어 갈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저자 이주영(李柱郢)

## 김호진칼럼

###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위태롭 습니다”



김호진 장로 생명성교회

고요? 이번엔 조국 같은 좌파들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도덕도 양심도 정의도 부끄러움도 없는 짐승 같은 그런 좌파들에 비하면 최소한의 양심은 가지고 있는 우파는 그래도 좀 덜 한 거 아닙니까? 어디 그 자 뿐이겠습니까? 드러나지 않는 숨어있는 더 추악하고 악질적인 자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3-40대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나라는 도대 체 어떤 나라인가요?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이 명확히 보장되고 인정되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입니까? 모든 것이 국가 소유의 공산 사회주의 나라입니까? 인간 백성, 살인마 김정은에게 지배받는 게 좋아요? 과거 조선 시대 처럼 중국을 떠받치고 三田渡의 3排9卵의 처참한 굴종의 노예 시절로 돌아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베네수엘라 같은 사회주의 나라를 바라고 있습니까? 여성들이 가족 몰래 컬럼비아로 가서 매춘으로 먹고 살고 어린 소녀도 길거리에서 7달러에 매춘하며 사는 그런 처참한 베네수엘라도 사회주의 정권이 망가뜨린 작품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우파가 이룩한 경제 번영의 부를 좌파는 북한 핵개발 하라고 퍼준 것이 아닙니까? 북한이 핵개발 못하게 막고 책임 진다고 한 김 대중은 죽었지요 그러한 자가 대한민국 최악의 적폐가 아닌지요? 젊은 세대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맨 날 헛웃음 짓고 거짓말과 조작되고 허황된 유체 이탈의 말만 하는 자를 좋아 하십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미리 적어준 종이 쪽지가 없으면 대화도 못하는 그런 자가 좋아요? 기자들의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멍청한 자가 좋아요? 나라를 부강 시키는 커 내라 망치고 경제를 파탄내고 민생 폭망 하게 하는 자가 좋아요? 기업들이 망하고 자영업자도 망하고 기업은 해외로 나가고 귀족 노조는 법을 조롱하고 실업자를 쏟아내는 나라 망친 자들이 좋아요?

세계1위의 원전 기술을 가지고도 탈원전 정책으로 해외의 수백 조원 건설시장을 포기하고 수많은 관련 기업까지 폭등에 세금 폭탄, 건보료 폭탄에 그레도 경제가 잘 돌아 간다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믿고 있습니까? 자기를 마음대로

30년을 집권 하겠다는 오만 방자한 정당이 좋아요? 누가 허락했기에 자기를 마음대로 30년을 집권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이 얼마나 엄청난 여감을 당하면 아니 얼마나 바보 멍청이 개 돼지로 취급 받기에 그들이 자기를 맘대로 정권을 30년간 잡겠다고 할까요?

현재 문재인 정부는 울산시장 선거를 노극적으로 개입하고, 조국펀드 그리고 각종 금융비리는 양파껍질을 벗겨내듯 수없이 터져 나오고 있는 뻔뻔한 정권이 계속 집권하기를 원하십니까?

현재 집권 민주당은 젊은 여러분들의 미래의 꿈과 희망을 만들 국가 재정을 미리 끌어와 자기를 장기집권을 위해 선심 복지로 퍼주고 온갖 짓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을 빚쟁이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도 지금 마시는 달콤한 복지의 독약이 보약으로 생각하십니까?

2020년 경자년에 나라가 존립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망하고 공산화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4.15 총선은 대한민국이 자유를 잃느냐 자유를 유지하느냐는 선택을 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욕심이나 유불리를 떠나서 단체의 손익계산을 접어두고, 지역의 정서나 학연 지연 혈연을 떠나서 목욕재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투표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장차 100년의 미래를 결정지우고 우리 자손들의 평생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모든 국민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 종파를 뛰어 넘어 모든 종교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거에는 사리 사욕과 자신의 속한 단체의 유불리를 떠나서 선거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선거가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이 나라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김호진 원로장로

## 윤대영 목사 칼럼

### 동맹이 없으면 침략자들 뿐이다.



윤대영목사 부천제일교회

진솔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자주국방이 가능한가인 것이다. 동북아의 군사 구조는 세계 국방 상위권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은 청대의 패권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일본 역시 뿌리 깊은 대륙상륙을 꿈꾸고 있다. 다자동맹은 실제로는 한국의 고립을 야기 시킨다.

외교의 독립을 획득하자면 국방력의 위위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북한이 미국과 대등한 대화를 허용하는 이유는 핵무기 때문이다. 국방우위와 함께 경제대국이 아니면 독자적 다자동맹을 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 교역으로 경제를 꾸려가고 있다. 당장 중국의 부품생산 공장이 우한 폐렴으로 차질을 빚자 현대자동차부터 휴업을 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실상을 경험하고 있다. 논리를 펼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로서는 강력한 혈맹 없이는 국제사회에서 존립할 수 없고, 뻘어나갈 수 없다. 일본과는 과거 역사적 사건을 빌미로 오늘의 다자동맹 결정한다는 것은 미래 발전을 포기하는 것이다.

북한이 주체사상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조선인민공화국을 창설할 당시 김일성은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보다 더 많은 친일파 인사를 기용했다. 미국과 방위비 문제로 설왕설래지만 공물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는 결정이 될 것이다. 만약 상식 이하의 사람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구축해온 한미일 안보와 경제벨트를 포기하고, 중국과 소련과의 관계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경제문제에 있어 중국과 우리는 그 규모나 긴요성에 있어 어느 나라보다도 긴밀한 관계를 부정하지 않는다. 이미 여권은 사회주의를 시행하겠다고 천명을 했다.

중국의 경제를 빙자하여 주한미군은 철수시키고, 중국의 본격적인 동맹 관계로 발전시킬 계획을 발표한 것과는 다름이 없다. 우한 폐렴으로 국민들은 긴장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시진핑의 방한과 동맹을 위해 본국 국민의 건강은 염려하지 않고, 중국인의 입국 거부를 시행하지 않았다. 얼마 전 여당원 일화에서 다자동맹을 지향하고 있다. 한.미.일 동맹의 단일 동맹에서 중국을 포함한 북한과의 다자동맹은 유익한 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북한의 기독교 신자들을 탄저균, 사린가스 생체실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핀란드로 망명한 자강도의 강계 미생물 연구소 소속연구원 47세 이모씨는 한 해에 200여명 북한 주민들이 사린가스 탄저균 성능 강화 시험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체실험의 대상으로 주로 정치범 수용소의 정치범과 기독교인이다. 강계 연구소 지하 2층에서 이들을 유리 관속에 가둬 사린가스 실험을 했고, 이같은 내용을 기록한 실험 데이터를 15GB 분량의 USB에 담아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자강도를 포함한 7곳에 생화학 무기 개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MBC 2015. 7. 3) 중국과 러시아와 동맹을 맺으면 결국 전체주의 사회가 되고,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국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민일 뿐이다. 인권은 없다. 유물사관이란, 모든 존재를 물질로 본다. 인간도 물질이다. 동맹 문제는 단순히 동맹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동일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이 동일한 체제가 운영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지금 중국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공공연히 바라고 있다. 사드를 설치할 즈음 중국이 한국에 대한 행위는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베이징 시대에 걸려 있던 한국 상사의 간판은 모두 사라졌다. 무슨 법을 적용해서라도 한국 기업의 모든 사업을 폐허로 만들었다.

세계 최강의 국가와 동맹을 할 것인가? 수천년 동안 침략하고, 착취하여 종주국 행세를 하고 조공도 바치던 중국과 동맹을 할 것인가? 이 문제 역시 4.15에서 국민이 스스로 결정할 과제이다. 한국인은 은혜를 입고, 보답함을 미덕으로 알고 있다.

미국은 2차대전에서 한국의 독립을 선물했다. 6.25 한국전쟁에서 한국을 지켜주었다. 잿더미에서 굶주리고 있을 때, 아낌없는 구제품을 공급해왔다. 단테는 신곡에서는 지옥에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는 배신자들이 징벌을 받고 있다고 했다. 현재의 경제 10대국은 기존 동맹 덕분이다.

윤대영목사

사설

#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한국교회를 복원restoration하자.

교회는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교회 시작 초기부터 목사는 교회의 로드맵road map을 명확하게 준비해서 실천하는 목회를 해야 한다. 교회를 자신의 청사진대로 이끌려고 하면 결국 더 이상 한계를 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된다. 왜 교회를 배우지 않으면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것인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고전3:11), 진리의 기둥과 터(딤후3:15), 하나님이 자기 피로사신 교회(행20:28), 감추어진 비밀(엡5:32), 즉 이런 교회를 알리고 하는 깊은 탐구를 통해 진지하게 원형 교회의 복원에 집중하면 새 교회new church를 다시 세울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복원해야 할까?

① 신학적 복원the restoration of theological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교회의 부르심 vocation이며 사명mission이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데 갈등하는 두 가지의 근본적인 것fundamental과 실제적인 것practical에 대한 균형이다. 대부분의 교회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를 처리하는데 비중을 쓴다. 투자보다 소비 중심적이다. 그러나 교회다운 교회는 본

질을 추구한다. 처치 플랜팅을 할 때 최우선 작업이 교회 자각perception을 위한 신학화 작업이다. 교회의 신학화란 어떤 이론적 신학자academic theologian가 되라는 말이 아니다. 성경적 교회biblical church, 성경적 믿음biblical faith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만일 교회와 신학이 분리되어 있다면 그 교회는 성경적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 신학적 교회가 현실적 교회이다. 비신학적 교회는 비현실적이다. 왜 그런가? 성경을 텍스트로 체계화 시키는 것이 신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경적 교육과 훈련biblical education & training이 다른 것과 대비해 높은 비율로 가르쳐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를 모르면 교회를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세우는 곳(마16:18, 고전3:10-15)이다. 교회는 성장이 아니라 믿음의 수준 향상이다. 충분하게 교회를 가르치는 길이 그들을 도와주고 돌보는 일이다. 우리 교회를 최상의 교회가 되도록 성경의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 사도들의 메시지, 사도적 리더십을 목표로 교회 세우기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처치 플랜팅의 텍스트들을 많이 참고해야 한다.

② 목사의 역할the role of the pastor 엡4:11-12절 "11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

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사는 은사는 단순히 목회 사역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들을 플랜터planter로 잘 구비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목사는 처치 플랜팅의 전문성과 사명이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교회의 제2secondary에 해당되는 information, idea, program, project가 마치 제1의primary 위치에 놓이면서 목사의 모든 목회는 자연히 실용성, 효과성에 민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처치 플랜팅의 핵심은 신적 목적divine purpose를 이루는 것이다. 거대한 것을 하기 위하여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성이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20년 전과 같은 교회리더church leader를 세워가지고 뉴 리더new leader를 세우고 계신다. 하나님의 리더십이 바뀌었다. 교회성장 리더십에서 교회 세움 리더십으로 사도적 리더십apostolic leadership의 목사를 만드신다. 당시는 목사의 리더십이 아니라 교회 리더십church leadership을 최대한 maximize 끌어올리기 위하여 교회스터디에 열중해야 하고 부르심의 내용도 명확해야 한다. 목사에게 일어나야

할 시프트shift는 교회를 제1의 위치로 세우는 일이다.

③ 미션mission 가시적 교회visible church는 가치와 사명을 중시하지 않는다. 한국교회도 사명이란 말이 약화되고 있다. 사도들이 쓰던 언어를 사용하면 회중들도 거부한다. 그러나 사도들은 교회를 가르칠 때 중심 언어를 일치시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도록 만들었다(행4:32).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언어가 중요하다. 강조하고 자주 사용하는 언어가 교회가 된다. 마치 처치 플랜팅church planting의 언어는 21세기의 가장 놀라운 언어이다. 21세기 20년에서 30년은 이 언어를 이해하는 초급교회elementary church로, 이 시기의 교회들은 모든 것을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는 플랫폼platform 역할을 할 뿐이다. 그리고 40년에서 60년 사이의 교회시대는 모든 영역에서 활동성이 강해지는 가속교회accelerator church가 된다. 그리고 70년에서 100년은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네트워크 되는 글로벌교회global church가 된다. 이미 미국교회는 제2의 가속교회로 접어드는 시기이기에 그동안 예배만 참석하던 신자들이church-goer/sunday christian 적극적으로 church planting을 공급하는 클러스터cluster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아직도 church planting의 개념조차도 사용하지 않는 무언교회dumbness church이다. 아직도 한국교회는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도 모른다. 과거와 오늘이 다르지 않다. 목사들도 church planting network 밖에서 자기 계획서만 가지고 교회 없는churchless 목회만 하고 있다. 한국 목사들의 생태계는 정말 플랜팅 리더들이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평범하게 동참한다. 교회의 사명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고전3:6절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④ Acts29 연합unity 교회의 붕괴는 이데올로기, 비전, 패턴,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의 본성nature와 그 교회를 이해하고 참여하는 연합unity에 있다. 흔히 교회의 모델을 무엇으로 하느냐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그것이다. 왜 처치 플랜팅의 기본 작업이 모델 교회model church에 대한 스터디인가? 교회는 유형type이 아니라 프레임frame이다. 목사가 원하는 교회를 말하거나 어떤 유행과 문화에 감각적 센스로 만들어진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모델 교회란 시대적, 문화적, 현대적과 관련이 전혀 없는 원형 교회, 성경 그대로의 교회, 사도들이 이행한 그 교회를 의

미한다. 지금 세계교회가 주목하는 church planting church는 같은 교회의 본성에 일치하며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연합했다. 메가처치mega church 패러다임을 버리고 네트워크 처치network를 붙잡았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Acts29 교회를 모델로 하는 사도행전의 연합에 참여했다. 교회는 일ministry보다 교회 자체가 더 중요하다. 목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만들기 때문이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사람을, 사도행전의 교회 사도행전의 사람을, 플랜팅 교회가 플랜팅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연합unity이란? 유기적, 공유적, 상호적으로 진정된 일치, 참여의 확장, 위임된 이행을 이루는 한 몸one body, 한 팀one team, 한 공동체one community이다. 한국교회는 연합의 의미도 재해석할 시기에 있다. 마치 교회의 의미를 깊이 다루게 되면 지금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들 대부분을, 다시 정의하고definition, 교정하고correction, 형성하는 formation 교회 언어 체계화가 가능해진다. 엡4: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肢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이 목회본질이다-1

## 설교 목표는 회중의 변화... 그 힘은 깊은 영성과 기도에서 나온다

21C 목회연구소장 김두현목사의 이것이 목회본질이라는 제목으로 16회 연재할 예정이다 - 편집자 주



김두현목사

21C 목회연구소 소장,

그러나 가장 힘든 작업은 누가 뭐래도 설교를 만드는 일이다. 한 편의 설교를 쓰기 위해서는 제목에서부터 본문 선택, 자료 모음, 구상, 교회 안과 밖의 상황 인식, 시대와 문화의 적실성, 해석과 적용, 회중 이해까지 종합예술작품이나 전문의에게 요구되는 것과 같은 고도의 실력이 요구된다.

설교자 본인의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는 물론 본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까지 더해진다. 이것이 설교자가 주는 압박감은 무엇보다 크다. 그래서 설교는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게 모든 목사의 불문율처럼 됐다.

심지어 많은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가장 심한 스트레스가 설교'라고 답할 정도다. 25~50분의 설교이지만 그 설교가 만들어지기까지 설교자가 겪어야 할 길고 긴 여정은 피눈물을 흘리는 고통의 산실이다.

설교는 원고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인도가 앞서야 하므로 설교자의 기도가 충분히 밀착되지 않으면, 윤리 수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귀에 듣기 좋은 연설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거나 회중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

이처럼 목사에게 설교가 점점 더 남기 어려운 장벽처럼 느껴지는 원인은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못한 데 있다. 오늘날은 정보화 시대, 디지털 시대, 스마트 시대, 미디어 시대다. 수많은 설교가 TV와 인터넷에서 넘쳐난다. 이를 통해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설교문도 볼 수 있다. 심지어 설교만 제공하는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도 많다.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가 적지 않다.

나는 21C 목회연구소 시작할 때부터 연구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많은 도서를 출간하는 데 역점을 뒀다. 실제로 지난 20여년 동안 목회 전문 도서만 400여종을 출간했다. 한국에서 개인 목회연구소가 이렇게 많은 창작 도서와 자료를 내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지금 목회자들의 토양은 점점 척박해져서 멀어지거나 책을 향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다.

연구소뿐 아니라 기독교 출판사들이 경영난을 겪는 원인 중 하나도 목회자들의 도서 구매 급감이다. 목회자들에게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책을 가까이하는 것이다. 목사는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다. 책을 읽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설교를 할 수 없다. 적어도 하루에 2~3시간씩 성경과 함께 목회 전문 서적을 깊이 탐구해야 질적 향상이 가능하다.

최소 하루 2~3시간은 기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위대한 설교는 깊은 영성과 끊임없는 기도에서 만들어진다. 목회자들은 설교의 테크닉 스타일 이미지를 개발할 것이 아니라 우선 좋은 책들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데 열정을 불태워야 한다.

설교는 설교자의 삶이 만들어주는 결실이다. 한 편의 설교를 위해 설교자는 자신을 바쳐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체질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설교자는 웅변가 만담가 텔레비전 배우가 아니라 강력한 성령이 임재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미국 최초 흑인 여성 국무장관을 지낸 콘돌리자 라이스가 존 오트버그의 책 '예수는 누구인가'에 쓴 추천사다. "장로교 목사의 딸이자 손녀인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멘로파크장로교회 교인으로서 존 오트버그의 '이 남자는 누구였는가'라는 설교 시리즈를 들으며, 내 사촌(역시 장로교 목사의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껏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내용이야.' 그 운명의 일요일 이후 우리의 실존은 완전히 달라졌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가 작곡할 때마다 악보 머리에 JJ라고 썼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여, 도와주소서'(Jesus, Juva)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

설교의 힘은 설교를 듣는 회중의 변화에 있다. 설교자가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쉽게 말해 설교 시간에 고개를 숙이거나 졸고 있는 성도가 몇 명인가를 보라는 말이다.

설교는 설교자 자신의 만족보다 청중의 변화에 의해 평가된다. 한국교회에 변화가 일어나려면 설교의 대상이 바뀌어야 한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의 책 '설교와 설교자'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교수나 박사한 사람들만을 위해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는 회중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회중 가운데 앉아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학문적이고 이론적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현실적으로 되십시오.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위해 강단에서 서는 것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설교 흐름은 커뮤니케이터communicator 설교다. 서로 간의 질문과 응답, 의사소통이 이뤄지는 쌍방향 연결 방식을 의미한다. 설교자들은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설교에 대해 깊이 성찰하며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과감히 고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김두현목사

## 보약목회와 마약 목회

사람들이 먹는 것 중에는 좋은 것이 있고 해로운 것이 있다. 한약방이 존재하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시장 경제원리 때문이다. 약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건강한 사람들이 몸에 좋은 약을 찾고 건강에 이상이 있는 자들도 치유를 위해서 약을 찾는다. 육체의 원활한 활동과 정신적 활동의 건강을 위한 음식물 섭취는 예나 지금이나 정설이다.

국가 경제나 교육이나 정치나 사회 질서나 예술이나 종교나 그 모든 인간사 분야에 보약이 있고 마약이 존재한다. 둘 다 약은 약이다. 그러나 하나는 건강에 유익하고 사회생활 모든 분야에 윤택유 역할을 한다. 반면에 후자는 해악을 끼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보약은 입에 쓰다. 당장 삼키기가 쉽지 않다. 금방 뱉고 싶은 심정이다. 모든 사람들이 보약을 취할 때 얼굴을 찡그린다. 그만큼 대중적이지 않다는 반증이다. 허나 마약은 입에 달다. 환상 세계에 도달하게 한다. 꿈에 부른다.

보약도 마찬가지로 마약도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약이나 마약은 둘 다 돈이 많이 든다. 물론 마약이 보약보다 훨씬 비싸지만 한번 중독되면 끊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보약은 중독성이 없다. 신체 모든 기관을 정상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도록 돕는다. 마약은 판타지 세계에 몰입하게 하고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숨어서 한다.

보약은 구조조정에 해당되고 마약은 포플리즘에 맞다. 구조조정은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나 포플리즘은 깨어 있는 선각자들 외에는 모두가 박수친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였는데 일 하지 않아

도 돈이 펍펍 주어진단다. 나라 경제가 거덜 나든 회사가 망하든 일단 한 몫 챙기게 하는데 누가 마다하겠는가? 보약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목회이나 마약은 인간 중심, 윤리도 덕 중심, 세상 중심으로 나아간다. 무엇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가? 사람들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흥겨워하고 사람들의 오감 충족이 된다면 성공한 종교 사업이다.

그러나 보수 꼰통으로 치부되고 시대적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처럼 간주되는 정통개혁주의 목회는 시대감각이 없고 시대를 읽어내지 못하며 사람들의 기호를 무시하는 보약에 불과하다. 한약사용이

일단 기도 시간이 단축된다. 예배횟수도 줄어든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성장하는 일은 관심 밖의 일이다. 성경이 참고서로 전락된다.

점점 줄어들고 있듯이 양약으로도 충분하다는 그럴싸한 논리가 먹혀든다. 그러나 그 폐단은 금방 나타난다. 일단 기도 시간이 단축된다. 예배횟수도 줄어든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성장하는 일은 관심 밖의 일이다. 성경이 참고서로 전락된다. 당장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량을 하나라도 더 쥐게 되는 일에 힘쓰게 된다. 교회는 거룩을 상실하고 세속주의 병폐에 쉽게 노출되어 더 이상 구별의식이 요구되지 않게 된다.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나선 성직자들도 지극히 인

간적인 존재가 유명세를 탄다. 과거 성자 스타일의 목회자는 기피 대상이다. 회중들의 입맛을 쓰게 하고 속이 쓰리게 하며 눈물을 흘리게 하는 목회에는 등을 돌리는 일이 흔한 세대가 되었다.

정권을 잡는 길, 혹은 유지하는 길은 보약이어야 할까? 마약이어야 할까? 장기 목회를 할 수 있는 길은 보약이어야 할까 마약이어야 할까?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하고 귀가 가려워 사육을 좇을 스승들을 찾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것을 따르는 자들 속에서는 마약목회가 최고이다.

그러나 참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한다면 역사의 주인이신 삼위 하나님은 어찌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는다면 보약 목회여야 하지 않겠는가? 세상 권력도 화부심일흥이라고 하는데 단기적인 패권을 위해서 마약 정책을 펼친다면 그들의 통치 밑에 있는 국민들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나라 파멸의 주동자로 남게 될 것이다.

교회 세우는 보약목회인가? 교회 파괴하는 마약목회인가? 선악 간에 판단하실 분이 계시다.

박홍락



홍차

# 21세기 개혁신학의 요람 **총회신학원** 입학요강

## 2020학년도 전기 특별장학생 및 신·편입생모집

### ■ 모집과정 및 자격

모집학과	모집과정	인원	구분	전형방법
학부과정	신학사(Th.B.)과정 신입	00명	주/야	고등학교졸업(예정)자 및 동등 학력자
대학원과정	신학석사(Th.M)과정 신입	00명	주/야	M.Div 과정 졸업자
	목회학석사(M.Div)과정 신입			학사학위 소지자 동등 자격자(정규신학졸업)
Reformed University (미국연방정부인가)	신학석사(Th.M) 신학박사(Th.D)	00명	주/야	공동학위, 별도요강 참조
특수반 - 강해설교반	강해설교, 설교작성, 설교전달을 집중강의하는 과정			
- 영어설교반	해외사역과 전문영어사역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발음, 영어구조, 전달 등을 교육하는 과정			
- 편목과정	본 교단에 가입하거나 목회자들이 정회원이 되게 하기 위한 특별교육과정			

### ■ 전형일정 및 방법

- 가.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접수
- 나. 전형방법 : ① 서류 ② 면접
- 다. 전형일자 : 상시모집
- 라. 전형료 : 30,000원(원서대 무료)
- 마.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 1부  
(원서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대학(원) 졸업(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동등 자격자는 해당 증명서 - 각 1부  
(학부과정 지원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또는 동등 자격증명서(검정고시합격))  
3) 당회장 또는 노회장 추천서 - 1부  
4) 주민등록등본 - 1통  
5) 반명함판사진(원서부착포함) - 3매

### ■ 특전

**입학생 전원 : 매학기 등록금(이사장학금) 50%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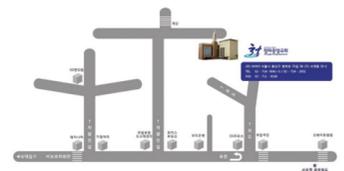
- 장학혜택  
재학 성적우수자 : 재학기간 등록금 전액 면제, 봉사자, 특기자 등에 각종 장학제도 운영.
- 수석졸업자 해외유학시 등록금 전액지원 프로그램 운영.
- 연구원(M.Div) 졸업자는 대신총회신학교와 연계된 영국, 독일, 남아프리카, 미국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으로 유학을 추천하면 유학기간 중 규정된 장학금을 지급함.
- 본교 졸업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사역할 수 있음.
- 미국 Reformed University(미 연방정부 인가대학)와 연계하여 학위과정 이수한 자에게는 미국 유학을 도와주며 우수한 신학교에 추천하여 등록금을 지원함.
- 본 신학원은 철저한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신학교육을 통해 졸업 후 목회현장에서 성경강해와 실천목회를 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계절학기(여름, 겨울)를 운영함으로 학점을 취득하여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

※ 입학문의 : 010-5370-5944 / 010-9736-7179



http://www.ds1961.com  
(0430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73길 58(청파동) 청파중앙교회(02-702-0041)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 총회신학원**

이사장 전광훈목사  
총회장 강대석목사  
학 장 김향주목사



세계의 중심 미국 남부의 수도 애틀랜타에 위치한

# Reformed University

1992년에 설립되어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며 Global University를 지향하는 명문교입니다.

<p><b>본교 인증기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SDE(미연방교육부)승인</li> <li>◎ CHEA(고등교육학력인가기관)인증</li> <li>◎ TRACS(미 기독교대학교 협회)의 정회원 승인</li> <li>◎ GNPEC(조지아 주정부 교육부)승인</li> <li>◎ DHS(미 국토안보부) F-1 VISA(국제유학생비자) 승인</li> <li>◎ Federal Student Aid(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및 용자)승인</li> </ul>	<p><b>진공과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chelor of Arts in Business Administration(BABA)</li> <li>◎ Bachelor of Arts in Theological Studies(BATS)</li> <li>◎ Master of Divinity(M.D)</li> <li>◎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MBA)</li> <li>◎ English Learning Support Program(ELSP)</li> </ul>	<p>전화 미국 770-232-2717 한국 010-8972-1114</p> <p>E-mail jaesigp@hanmail.net</p>
<p><b>글로벌 캠퍼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제주 캠퍼스</li> </ul>	<p><b>특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유학생을 위한 SEVIS I-20발급</li> <li>◎ 영주권, 시민권자는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및 용자 가능</li> <li>◎ F-1 VISA 유학생은 졸업 후 1년 OPT(현장실습)가능</li> </ul>	<p>본교주소 1724 Atkinson Rd. Lawrenceville, GA 3004</p> <p>홈페이지 www.runiv.edu</p>

대한민국 연락처

**- 한국 제주 캠퍼스**

문의 : 010-8972-1114

메일 : jaesigp@hanmail.net